

## 지역 소식통

부안군, 2022년 지방재정  
집행실적 우수기관 선정

부안군은 행정안전부 2022년 하반기 지방재정 집행실적 평가에서 소비·투자부문 관내 2위, 신속집행 관내 4위를 차지해 우수 시군으로 선정돼 특별 교부세 527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방재정 신속집행은 민간시장에 자금을 신속히 공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군은 일일 집행실적 모니터링을 통해 부진사유를 점검, 신속 집행보고회 개최 등 재정집행의 총력을 다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소비·투자 부문에서 목표 대비 집행률 132%를 달성하는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전 직원이 적극적으로 재정집행에 힘써준 덕분에 이뤄낸 성과"라며 "불가상승으로 어려운 시기에 군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올해도 신속집행에 최선을 다해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 2023 내나라 여행박람회

## 고창 관광 홍보관 운영

고창군, '2023 내나라 여행박람회'서 고창 관광 홍보관 운영 -2023 세계유산도시 고창 방문의 해 홍보관 운영

전북 고창군이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 열리는 '2023 내나라 여행박람회'(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DDP)에서 2023 세계 유산도시 고창 방문의 해 고창 관광명소를 알리는 관광 홍보관을 운영한다.

고창 관광 홍보관은 증가하는 여행 수요에 발맞춰 디자인으로 불거리와 이벤트 행사를 준비해 잠재 관광객 유치에 나선다. 특히, 입체 포토존을 설치해 운곡 립사르습지의 볼 정취를 사진에 담아 추억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제20회 고창 청보리밭 축제'와 '제50회 고창 모양성제' 등의 홍보를 위해 리플릿 배부, 홍보 동영상 상영, 디자인은 이벤트와 고창 관광 홍보로 관광객의 눈길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 부안 동진 수미 햇감자 출시

로컬푸드직매장 '텃밭할매' - 행복장터, 14일부터 온·오프라인 판매

부안로컬푸드직매장 '텃밭할매'와 부안군 로컬푸드 행복장터는 본격적인 수확철을 맞은 동진수미 햇감자를 오는 14일부터 온·오프라인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동진수미 햇감자는 동진강 주변의 미네랄이 풍부한 간척지에서 생산돼 따로 소금을 넣지 않아도 짭짤하며 포슬포슬한 맛을 자랑한다.

부안로컬푸드직매장은 지난 2022년부터 오프라인 판매와 온라인판매를 병행하여 동진감자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으며, 2022년에는 35톤을 판매하여, 195백만원의 판매고를 올렸으며, 올해는 판매량 75톤, 매출액 3억원을 목표로 판매전략을 짜고 있다.

오프라인 판매는 부안로컬푸드직매



장 뿐 아니라 2022년 11월 개장한 서해안 고속도로 휴게소로 로컬푸드 행복장터에서도 판매를 진행할 예정이며 온라인 쇼핑몰은 기존 2개(텃밭할매, 우체국)에서 7개(텃밭할매, 우체국, 네이버 쿠팡, 전북생생장터, 농리, 녹강) 쇼핑몰로 확대 판매한다.

또 기존 단일 규격(5kg) 판매에서 소

포장(3kg) 규격도 추가하여 소비자 선호도와 편의성을 더했다.

특히 행복장터에서는 또한 5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부안에서 생산되는 유기농 쌀 1kg 또는 장비구니를 증정하는 특별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며 직접 매장을 방문한 고객에 한해 택배 배송도 일부 지원할 계획이다.

부안로컬푸드 관계자는 "동진 수미 햇감자는 밭의 사과라고 불리는 부안의 자랑거리다. 부안감자가 전국 최고의 브랜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작년 11월에 개장한 부안군 로컬푸드 행복장터는 개장 100여일 만에 매출 1억원을 달성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 “봉사인력 지원 등 적극 협조할 것”

부안군-한전MCS 부안지점, 취약계층 밭굴·지원 협약 체결



부안군과 한전MCS(주) 부안지점은 지난 12일 취약계층을 위한 봉사활동과 복지사각지대 밭굴·지원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유안숙 사회복지과장과 이광수 한전MCS(주) 부안지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매년 후원금(품)과 봉사활동, 관내 복지사각지대 밭굴·지원을 위한 양 기관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추진됐다.

한전MCS(주)는 전력당국과 함께 청진구청과 함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추진됐다.

유안숙 사회복지과장은 "고독(립)사

등 신(新)사회적 위험 증가에 선제적

인 대응을 위해 다양한 인천망 확충이

절실히 시기"라며, "양 기관의 긴밀

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추진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전MCS부안지점은 매년 후원금(품)과 필요시 봉사활

동 인력을 지원하고, 현장 업무 도중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주민 밭굴·지원을

위기의심 사례를 발견하면 사회복

지과에 의뢰해 신속한 상담과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고, 봉사인력 지원 등 적극적인 협조를 하겠다"고 밝혔다.

유안숙 사회복지과장은 "고독(립)사 등 신(新)사회적 위험 증가에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다양한 인천망 확충이 절실히 시기"라며, "양 기관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추진됐다.

한편 이날 업무협약식에서 한전MCS

부안지점은 부안군 관내 취약계층을

위해 쌀달리며 이웃돕기 성금 50만원

을 기탁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보행 약자 이동권 확보 주력

정읍시, 소규모 점포 대상 맞춤형 경사로 설치 추가 모집

정읍시가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 보행 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추진하는 '소규모 점포 경사로 보급 지원사업'은 점포 앞의 문턱 때문에 장애인 등 보행 약자의 접근과 출입이 어려운 생활시설에 맞춤형 경사로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는 사업이다.

장애인 등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 의무설치 시설이 아닌 300㎡ 미만의 소규모 점포를 대상으로 한다.

경사로는 알루미늄, 철관, 방부목 등 다양한 재료를 이용해 현장 여건에 맞춰 설치된다.

경사로 설치를 희망하는 소규모 점포는 정읍시 자체장애인협회(수성5동 41-11)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단, 체납이 없어야 하며, 임차인의 경우 건물주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접수순서에 따라 현장 방문해 설치 가능 여부 등 실태조사를 거쳐 지원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시민 누구나 공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세심한 복지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 정읍시, '단풍미인 쌀' 생산 위한 농가 교육 진행

정읍시가 최근 소비자들의 먹거리에 대한 눈높이가 매우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읍시 대표 브랜드인 단풍미인 쌀의 경쟁력 높이기 위해 나섰다.

시는 13일 영월면사무소와 신태인 행정복지센터에서 단풍미인 쌀 생산

단지 참여 농가 137명을 대상으로 최고 품질의 쌀 생산을 위한 농가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전북농업기술원 와물 식품과 유영석 실장이 강사로 나서 정읍에서 재배하는 벼 품종의 특성과 고 품질 쌀 생산을 위한 품종 선택, 이앙 시기, 시비 방법, 적기 수확시기 등에 대해 교육했다.

시는 단풍미인 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맞춤형 영농현장 지도를 강화하고, 전문 지도관리원을 배치해 매주 1회 현장 지도에 나설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 고창군의회, 제297회 임시회 개최

고창군의회(의장 임정호)는 13일부터 오는 21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297회 고창군의회 임시회를 갖는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 운영위원회에서는 이선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창군의회 지방공무원 비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차남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창군 아외문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등 16건,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박성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창군 가로등 및 보인등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등 12건, 총 30건의 의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어 오는 14일부터 19일까지 군에서 충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창읍 가족행복지원센터' 청사 신축 등 총 17곳의 군정 주요 사업장을 방문·점검하여 각 과·담당관·소장으로부터 사업 설명을 듣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임정호 의장은 개회사에서 "의원님들께서는 각 의원의 생활과 주요사업의 진행상황을 꼼꼼히 점검하여 문제점 있는 사항은 합리적인 대안을 통해 군정발전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